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YWCA 4층 강당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유튜브: <https://url.kr/kxz2jy> / <https://url.kr/27j4xg>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26-6231343 (ㄹㅇㄹ)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이끄미: 박소영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수어통역: 함혜원 (서울농아감리교회)
 반 주: 강수빈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문자통역: 모두가행복한소통AUD
 풍 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풍물패 ‘얼’&‘한얼’ 방송중계: 박찬영, 김진수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중/찬양: 움트다 촬영: 무지개신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홍보실

- * 2024년,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8주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성혐오 범죄와 묻지마 폭행,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교회성폭력 상황도 심각합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가 함께 ‘연대와 저항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합니다.
- * 각 교회의 신앙 전통에 따라 ‘하나님/하느님’으로 참여합니다. 올해에는 ‘하느님’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예배로의 부름 황보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각 단위의 말은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고백할 때, 회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눠준 끈을 흔들며 ‘하느님의 환대’에 응답합니다.*

- ‘불의에 저항하고 사랑으로 연대하는 모든 여성들과 춤추시는 하느님’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 그곳에 서 있는 여성들의 벗, 하느님’ (공간 엘리사벳)
- ‘우리와 함께 보란 듯이 끈질기게 반짝이는 하느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우리의 연대와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느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 ‘억압받는 자, 약한 자를 편드시는 투쟁의 하느님’ (믿는페미)
- ‘정의, 평화, 생명의 삶으로 우릴 부르시는 하느님’ (서울YWCA)
- ‘세상의 따뜻한 틈을 만들어나가시는 하느님’ (여름교회)
- ‘마침내 정의와 사랑의 움을 틔우시는 모두의 하느님’ (움트다)
- ‘차별과 불평등,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느님’ (청어람ARMC)
-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신 하느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하느님의 형상으로, 나답게 당당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느님’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 ‘빈틈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시는 하느님’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 ‘정의, 돌봄, 연대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느님’ (한국YWCA연합회)
- ‘세상의 구조악에 낙인찍힌 이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느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말은이: 우리가 당신의 초청에 응답하여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탱하며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며 안아주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항과 연대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연결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느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 찬송 입례송

Em7 Asus4 Dadd9 Em7 Asus4 Dadd9

이제 우리여 기이 령 게 모 여 있 으 니 - 주 여 우 리 가 운 데 로 어 서 오 소 서 - 절 망
 서로 의 손 길 과 옷 음 과 위 로 를 통 해 - 주 여 당 신 이 함 께 하 심 을 느 끼 니 - 이 제

우 리 여 기 - 모 여 있 으 니 - 우 리 가 운 - 데 로 오 소 서 - 절 망
 손 길 과 옷 - 음 과 위 로 를 - 당 신 이 함 께 하 심 느 끼 니 - 이 제

G Asus4 A F#m7 B7 Em7 Em7/A Dadd9 D

과 고통 속 에 있던 -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이 시간 당 신 께 다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 어 디 있 든 지 - 무슨 일 을 당 하 는 지 더 는 혼 자 가 아 님 을 깨 달 게 하 소 서

과 고통 속 에 있던 - 우리 상 처 입 은 영 혼 이 시간 당 신 께 다 내 려 놓 겠 습 니 다
 우 리 어 디 있 든 지 - 무슨 일 을 당 하 는 지 더 는 혼 함 께 함 을 깨 달 게 하 소 서

† 교독 여성시편 18편, 해방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 이기쁨 (서울YWCA)

- 말은이: 해방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께 즐거이 노래 불러라.
- 회 중: 미리암, 롯, 다말과 마리아 그리고 여성해방을 온몸으로 노래한 여성들의 하느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할렐루야!)
- 말은이: 마리아 찬가를 부르며 풍악을 올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노래 불러라. (얼씨구 좋다!)
- 회 중: 높으신 여호와를 노래했던 미리암을 기억하며 소고를 들고 춤을 추어라. (지화자 좋다!)
- 말은이: 하느님은 여성들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며 여성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고 여성을 누르는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 회 중: 하느님은 온갖 멸시와 차별, 폭력 속에서 부르짖는 여성들의 편에 서 계셨다.
- 말은이: 하느님의 벗들아, 하느님과 동행하면 해방의 길이 열릴 것이다.
- 회 중: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생명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첫 문이 열릴 것이다.
- 말은이: 굳건한 가부장제와 만연한 성차별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해방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해방일세!)
- 회 중: 여성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격하는 백래시! 이에 맞서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해방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해방일세!)
- 말은이: 성폭력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은폐하는 사회/교회 속에서 생명 살림을 위해 맞서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해방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해방일세!)
- 회 중: 이 땅에서 온갖 차별과 혐오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해방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해방일세!)

말은이: 해방으로의 초대, 이것은 하느님을 따르는 생명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다같이: 지금도 불의, 차별과 혐오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천둥소리 속 은밀한 곳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느님께 즐거이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아멘

*출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서언어연구반 역음,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시편』 (여성신학사, 2005), 46-47쪽, 2024년 예배문 준비팀에서 편집 수정하였습니다.)

† 우리의 기도 장해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김현정 (나비)

1. 여성혐오, 차별, 배제와 폭력에 저항하는 기도

위로의 하느님,

가부장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꿈과 미래를 접었던, 혹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느님 앞에서 절실하게 기도하며 그렸던 선명한 꿈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짓밟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적이고, 여성의 노동이 평가절하되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의무적 할당제가 제도화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참여와 여성지도력의 보장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 동일한 노동 환경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선택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을 강요받는 현실, 노동 중지(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에 복귀할 때 고강도-저임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전히 만연한 직장 내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생명이 위협 받거나 안전하지 못한 노동 현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평등의 하느님,

누구의 눈치나 평가를 겁낼 필요 없이 여성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드러나고, 교회와 사회 내에서 여성지도력이 마땅히 인정되고, 폐쇄적인 법과 정치구조를 변혁하여 여성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여성에 대한 혐오, 폭력, 살인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구조적 성차별, 일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응답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정의의 하느님,

다양한 폭력과 혐오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이들에게 뼈저린 반성과 성찰, 사죄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내리시어 정의를 이루어주옵소서.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성폭력을 용인하는 폭력의 문화에 끈질기게 투쟁하고 이를 바꾸어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응답송 자비 베푸소서

자 비 베푸 소 서 자 비 베푸 소 서

자 비 베푸 소 서 이 제 와 영 원 히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2. 해방과 치유를 향한 연대의 기도

해방의 하느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부장적 문화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이 다른 존재를 짓밟으며 거룩한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신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함으로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돌보며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않는 하느님의 공의로 가득한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 통념과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과 혐오가 팽배한 현실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며 불안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여성과 억압받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도 반영되어 교회와 사회변혁을 이루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느님!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 우리를 당신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는 우리가 자신의 몸,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지쳐 소진된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혐오, 차별, 배제와 폭력으로 고통당한 우리, 특별히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이들까지도 위로해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두와 여러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굳건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응답송 자비 베푸소서

† 말씀 읽기 출애굽기 15장 20-21절 | 달밤 (믿는페미)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 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개역개정)

† 특송 미리암의 노래 | 박소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자 일어나 다시 또 노래하자 저 해방이 우리를 부르네
자 일어나 이제는 걸어가자 그 자유로 가는 길 열렸네
광야를 건너 바다로 가로막힌 우리는 바다를 열고 그 사잇길로 함께 가리라
우리를 치러 달려 나온 말과 군사를 바다를 담고 그 사이로 던져 넣었네
나를 짓누르던 억압의 멍에 다 내려놓고 눈물의 바닷길 갈라낸 마른 땅 딛고 서리
차별의 사슬도 우리의 자유 막을 수 없네
두려움의 침묵 뚫고서 열린 길 같이 걸어가자
자유로 떠난 길에 우리를 가로막은 절망은 새 희망으로 열린 새로운 길이 되었네

자유를 빼앗으려 우리를 다시 찾은 강력은 우리의 해방되신 주님을 이길 수 없네
자 일어나 다시 또 노래하자 저 해방이 우리를 부르네
자 일어나 이제는 걸어가자 그 자유로 가는 길 열렸네

words & music by 이지음 2020 ©이지음

† 말씀 펴기 찬가: 저항과 연대의 노래 | 최은영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현장의 증언
1. 유희정 (한국기독교학생회 IVF)
2. 이은주 (새날교회,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미리암의 승전가 김소희 (한신대 신학부 학생회), 김예원 (한신대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말은이1: 저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던 권력과 자본의 힘을 바닷물로 흘려보내셨어요.

말은이2: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은 더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해방 되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회 중: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목소리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해방이요 여성의 하느님이십니다!"

말은이1: 우리 하느님을 찬송합시다! 하느님은 모든 편견을 넘고,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바다로 쓸어버리셨어요!

말은이2: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혐오를 이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느님은 차별받는 생명들의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세요.

말은이1: 저들이 우리를 또 쫓아오겠죠? 두렵기도 해요. 일을 못 하게 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어찌지?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막막하지만, 하느님은 우리 앞의 거대한 혐오와 차별을 파도로 밀어내실 거예요!

말은이2: 여러분 우리 하느님을 찬양해요! 소고와 복을 치며 두려움을 날려버려요! 목소리 높여 혐오와 차별을 날려버립시다! (모두 나눠준 끈을 흔듭니다.)

말은이1: 불평등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회 중: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합니다. 우리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말은이2: 돈, 권력, 위계가 추앙받는 이 시대에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회 중: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한 생명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며 지금 여기 계십니다.

말은이1: 혐오와 차별, 독점욕, 생명을 도구화하는 폭력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회 중: 하느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파도로 덮으시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말은이2: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예언자 되어 손에 소고를 들고 찬양합니다.

회 중: 모든 억압당한 자들이 우리를 따라 나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송합시다!

말은이1,2: 여성혐오와 여성차별!! 폭력과 불평등!!

다같이: 하느님이 바다에 던지셨다!!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말은이1,2: 성폭력과 성차별!! 가부장제와 유리천장!!

다같이: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다!!

말은이1: 모든 혐오와 차별을 바다로 쓸어버리신 하나님께 함성과 박수로 화답합니다.

다같이: (함성과 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말은이1,2: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다같이: 사랑이 혐오를 이긴다.

*** 성공회의 신앙 전통을 따라 성찬예식을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성만찬

집례자 한주희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박정하 (기독교민회)

성찬위원 임선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이민하 (향린교회)
배한나 (청어람ARMC), 김지원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 성만찬 초대와 응답

집례자1: 당신의 형상대로 여성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라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당신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세상의 죄와 어둠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시다.

집례자2: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견고한 가부장제, 만연한 성차별, 백래시와 유리천장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우리를 통해 진정한 해방과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두 함께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하나가 됩시다.

♪ 이곳에 오소서 1절

Em B Em Am

이 곳 에 오 소 서 사 - 랑 의 성 령 님 은 헤 의 하 느
희 망 의 노 래 로 찬 - 양 드 립 니 다 은 함 과 은 헤
사 랑 의 마 음 을 주 - 께 드 립 니 다 온 누 리 가 득

7 G D7 B7 Am B7

님 도 생 명 주 소 서 어 등 속 헤 멜 때 날 -
의 샘 물 이 신 주 님 믿 음 소 망 사 랑 선 -
히 평 화 이 신 주 님 당 신 의 이 름 을 늘 -

12 Em Am B Em

지 켜 주 - 소 - 서 당 - 신 은 언 제 나 - 나 의 생 명
울 로 주 - 시 - 네 당 - 신 은 언 제 나 - 나 의 희 망
찬 송 합 - 니 - 다 당 - 신 은 언 제 나 - 나 의 평 화

■ 제정사

집례자1: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집례자2: 그리스도께서는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1: 모두 빵과 포도주를 향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 모두 성찬 상을 향해 손을 뻗어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한마음과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며 해방과 새 희망을 선포했던 여성들처럼 우리도 함께 연대하며, 일상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 이곳에 오소서 2절

■ 주의 기도

집례자2: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성들의 주가-도문>으로 주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성들의 주가-도문>

우리 하느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출처: 강남역여성혐오범죄 5주기(2021.05.25.) 여성주의연합예배 발표.

♪ 이곳에 오소서 3절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 평화의 인사

집례자1: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소서.

회 중: 당신과 여러분에게 함께 하소서.

집례자2: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회 중: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서로의 손등에 십자가를 긋고, '평화를 빕니다' 인사합니다.)

■ 빵을 쪼갬

집례자1: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에서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빵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회 중: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빵을 나누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 분병/분잔

집례자2: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느님께서서 여기 계십니다.

다같이: 주님, 우리를 하나되게 하소서.

집례자1: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아멘.

집례자2: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아멘. *성찬위원들이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회중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 감사의 기도

다같이: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폭력과 차별, 배제와 혐오로 얼룩진 이 세상에 맞설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서로를 기쁨으로 돌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드림 사랑의 나눔 | 고마움 (한국YWCA연합회), 이진혜 (위드유센터)

홍다운 (한국YWCA연합회), 이윤미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헌금과 결단의 메시지 카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의/평화/생명/감사/위로)

사 랑 의 나 눘 있 는 곳 에
하 느 님 께 서 계 시 도 다

† 봉헌기도 이영미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사회)

† 결단찬양 찬송가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1. 미 리 압 과 여 인 들 이 춤 을 추 며 노 래 하 고
 2. 마 리 아 는 이 윗 들 과 기 도 하 며 노 래 하 고
 3. 오 랫 동 안 기 다 려 온 백 성 들 이 노 래 하 고

전 쟁 무 기 멀 리 하 고 하 나 님 을 기 뻐 하 네
 비 천 함 을 높 이 셴 던 하 나 님 을 기 뻐 하 네
 구 원 실 현 약 속 하 신 하 나 님 을 기 뻐 하 네

온 갖 수 난 이 겨 내 고 평 화 세 상 바 라 보 며
 갈 리 리 의 사 람 들 과 평 화 세 상 바 라 보 며
 분 열 분 쟁 사 라 지 는 평 화 세 상 바 라 보 며

역 사 안 에 살 아 계 신 하 나 님 을 찬 양 하 리
 세 상 속 에 태 어 나 실 예 수 님 을 찬 양 하 리
 평 등 인 간 창 조 하 신 하 나 님 을 기 다 리 세 아 멘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 공동축도 김정원 (여름교회)

말은이: 나일강에 가에서 보인 미리암의 용기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회 중: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용기를 내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은이: 차별과 억압을 바다에 몰아넣으신 하느님을 미리암과 함께 찬양합니다.
회 중: 저항과 연대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은이: 또 한 명의 미리암이 되기를 걱정하는 ‘여성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회 중: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은이: 모든 성폭력과 혐오를 저항하는 ‘여성들’이 연대합니다.
회 중: ‘나’는 모든 혐오와 차별, 성폭력에 맞서고, 연대와 저항의 찬가를 온몸으로 부르는 미리암이 되겠습니다.
말은이: 이제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와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위로를 담아 나와, 그대와 해방의 그 날을 위해 춤추며 싸우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연대와 저항의 찬가(축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풍물패 ‘얼’&‘한얼’

* 나눠준 끈을 순서지에 매달아 ‘소고’를 만들고, 길놀이예 참여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8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연대합니다 :)”

“잘 해 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꺼예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예배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엔 이맘때쯤 일정을 비워두고 현장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준비 고맙습니다.”

“여성주의 연합예배라니 그 자체로 정말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연대와 세심한 수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뜻깊은 예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참여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헌금자** 김동진, 김은정, 류순권, 민아름, 박소영, 박정하, 서울YWCA 여성참여
위원회, 서소영, 석미경, 섬돌향린교회, 약속교회, 여혜숙, 이수연, 이영동, 이영미, 이현
아, 이희선, 정혜진, 최규희, 최은영, 폴짝 (2024.05.22. 오전 기준.)

◎ **여성주의 연합예배 공동주관 단위** *2024년 기준/ 가나다순 명기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공간 엘리사벳,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교민회, 나비,
대한성공회 여성선교센터,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
교역자연합회,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서울YWCA, 여름교회, 움트다, 위드유센터,
청어람ARMC,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부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부 학생회, 향린교회 (총29개)

“찬가: 저항과 연대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0-21절)

최은영 목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미리암과 출애굽의 배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은 누구일까요? 아마 마리아로 알고 계실텐데요. 구약성경에는 미리암으로 등장하죠. 히브리어 미리암(מִרְיָם)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미리암의 축약형 마리아(Mαρια)가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했던 여성 중에도 마리아가 있어 흔한 이름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미리암의 유명세가 신약시대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적고, 그 역할 또한 작아 보이지만, 미리암, 마리아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 제국에서 이끌 어낸 지도자 모세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살펴보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자 모세를 있게 한 중요한 여성들 중 한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백성들이 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웠습니다. 이후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죽었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가 로마시대 헤롯왕이 내린 명령으로 2세 미만의 남아가 죽게 된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과 유사합니다.

이집트의 공주가 아버지 바로왕의 이스라엘민족말살정책을 모를 리 없지만, 갈대상자에 담겨져 온 아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그때 미리암은 겁없이 바로 공주에게 가서 유모로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오늘날로 하면 육아도우미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친 아들 모세를 양육하게 되었지요. 이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산 후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기억되는 것 중 하나가 출애굽 전승입니다. 노예였던 신분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 사건, 그 중에서도 흥해가 갈라지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사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 전승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앞에 나오는 모세의 승전가로 더 알려져 있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모세의 노래 뒤에 이어 나오는 미리암의 이 짧은 노래를 가장 오래된 노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구약학자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말이 어눌하여 언변이 뛰어난 형 아론에게 도움받았던 모세가 이렇게 수려한 노래를 한 것에 대해 후대의 편집에 기인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자 미리암과 그의 노래가 주는 의미

본문에는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누이가 아닌 아론의 누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행한 역할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아론, 미리암 역시 이스라엘의 주요지도자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주전 8세기 예언자 미가도 6장 4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고 하면서 미리암을 모세와 아론과 나란히 언급합니다. 본문에서도 아론의 누이에서 그치지 않고 예언자, 즉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남성형

명사는 ‘나비(נבי)’지만, 여성형 명사는 ‘네비아(נביא)’입니다. 성경에서 ‘네비아’로 언급되는 여성은 5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리암(출 15:20)과 드보라(삿 4:4), 훌다(왕하 22:14), 이사야의 아내(사 8:3), 노아다(느 6:14)입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 별다른 지적이 없기에 여성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계속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를 두려워했거나 무시한 이들에 의해 지워진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전쟁에 이기고 온 이를 환영하며 노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의 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환영했을 때,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6절 이스라엘 여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의 승전을 높이는 노래를 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미리암을 포함해 함께 한 여성들은 사람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성예언자로서 공동체를 이끈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성예언자의 존재는 예언서의 이름이나 대표적인 활동이 없는 듯 하지만, 미리암은 출애굽 공동체를 통해 여성지도력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을 따라 나온 여성들은 악기 소고(작은 북)를 동원한 노래와 춤을 추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을까요? 노예 시절, 이집트의 지배하에 온갖 억압과 차별을 당했던 경험이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바다에 처넣으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지요. 그간의 서러움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노래를 한나의 노래(삼상 2:1-10)와 마리아의 찬가(눅 1:46-5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지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강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가부장제 하에, 제국의 논리 앞에 힘없고 굽주린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가 된 것으로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선 노래가 홀로 독백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공동체가 함께 한 미리암의 노래와는 구분되기도 합니다.

계속해 저항과 연대의 노래를 불러라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춤추며 소고 치며 비파와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닌 명령이지요. 이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가만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어디서 나왔는지 악기가 등장하고 경직된 의무로서의 춤이 아닌 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와 같은 찬양과 경배의 자리가 아닐까요? 예배가 늘 기쁨과 찬양이어야 하는데에 대한 다른 의미로 때론 불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 슬픔의 예배도 같이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슬픈 자, 고통 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면 예배 속에서 늘 기쁘고 감사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태도는 적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과 같은 여성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교회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장로님, 여성목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의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교회현장에서 여성들의 자리는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지요? 한번에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해도 그동안 남성 중심의 교회의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이 청년이, 때로는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노래하며 소고치며 춤추었던 여성들이 미리암을 리더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하지 그것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계속 섬김과 순종만을 강조하지 리더십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미리암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좋은 기사보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들어 모세

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악성피부병(나병)에 걸린 미리암에 대해 설명하는 링크가 많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앞서 언급한 지도자, 예언자로서의 미리암의 모습을 없앨 만큼의 강력한 내용인 듯합니다. 모세가 구스 출신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 미리암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여성차별뿐 아니라 교회지도자를 비방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심어주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는 악성피부병(나병)을 앓는 이를 돌보느라 감염된 것으로요. 신명기 24장 9절에서 나병에서 회복된 미리암을 다시 언급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7일간,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공동체가 행군하지 않고 기다리며 영향을 줄 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차별하는 하나님, 누군가를 더 억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상이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통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신학적 성서해석을 통해 미리암을 다시 발견해야겠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다시 읽을 때,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나에서 가려지고 소외되었던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진정한 예언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여성들의 춤과 노래는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차별과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해라는 자연과 협업을 통해 구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야겠습니다. 강함에 굴복당하지 않고 저항하며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연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춤으로, 노래로, 악기연주로 각자에게 주어진 모양으로 저항하고 희망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절망과 포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미리암이 주고자 한 희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바다 앞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저항하고 춤추게 하실 것을 바라며 축복합니다.

찬가: 연대와 저항의 노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출 15:20)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벌어진 여성혐오 범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